

Not I: 욕망과 향유의 경계:
정신분석의 윤리를 중심으로*

박 지 숙
부산대학교

『내가 아니야』(*Not I*)의 문학적, 연극적 새로움은 강력한 ‘부정’의 힘(방식)에 기인한다. 이 극에서 부정은 구조적 일관성속에서 육체, 언어 그리고 주체 등의 다층적 층위에서 발생한다. 먼저 육체적 측면에서 『내가 아니야』가 선사하는 ‘놀라움’은 어둠 속에서 8피트(feet) 높이에 떠 있는 무대 위의 주인공 입(Mouth)의 존재이다. 자연스러운 신체의 키를 초과하는 높이에서 인간의 한 신체 기관을 가리키는 보통명사 ‘입’이 곧 이름인 이 기이한 ‘인물’은 베케트 연극작품들 중에서도 가장 파격적인 신체 절단의 예를 제공한다. 반면 무대 위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인물인 ‘청자’(Auditor)는 온 몸을 천으로 뒤집어 쓴 채, 이름, 얼굴, 성별, 인종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입이 극소화를 통하여 신체를 지워버렸다면 청자는 개인성의 표식을 모두 지워버린 ‘덩어리’ 같은 육체를 통해 동일한 효과를 얻고 있는 것이다.

개별화 되지 않은 육체, 즉 부정된 육체는 발화하는 주체의 부정과 연결된다.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4-037-A00228)

『내가 아니야』에서 입의 발화는 곧 ‘나 없이 말하기’를 수행하는 담론적 과정이다. ‘입’은 일관되게 발화하는 ‘나’를 부정하면서 주체의 기표인 ‘나’(I)를 ‘그녀’(she)로 대체한다. 『내가 아니야』에서 ‘나’는 한번도 나타나지 않는 사라진 언어의 조각이다. 베케트는 연극의 제목을 『내가 아니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텍스트 속에서 이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입은 그녀에게만 들리는 목소리에 반응하여 극 전체에서 모두 다섯 번에 걸쳐서 “뭐라고? . . . 누구? . . . 아니야! . . . 그녀야!”(what? . . . who? . . . no! . . . she!)라고 말할 뿐이다. 즉 입은 한번도 ‘나’(I)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며 “그녀”라는 3인칭을 통해 ‘나’를 지운다.

육체와 주체에 가해진 부정에 뒤이어 입이 보여주는 마지막 파격은 ‘언어’ 그 자체에 대한 ‘파괴적 폭력’이다. 언어적 주체의 표지를 거부하고 육체 속에서 공간화 되지 않는 입의 대상적 지위는 기의와 기표의 연결에 사로잡히기 이전의 물적 언어와 등가를 이룬다. 『내가 아니야』에서 입은 정상적인 문장의 통사구조를 그 자신의 신체와 마찬가지로 절단하고 파편화함으로써 발화를 ‘구토’로 바꾼다. 언어적 발화의 과정을 통해 불가능한 신체적 생리작용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언어는 물화되고, 의미는 소음의 차원에서 무화된다.

본 연구는 『내가 아니야』에서 발견되는 다층적 ‘부정’의 방식과 의미를 라캉(Jacques Lacan)의 정신분석학에 근거하여 상징계의 피륙을 찢는 실재계적 향유의 드라마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내가 아니야』를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조망했던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라캉의 논의를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여성성의 특성을 부각시키는데 이용하고, 여성 주체의 전복성을 주장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었던 반면, 본 연구는 라캉의 ‘정신분석의 윤리학’(the Ethics of Psychoanalysis)을 통하여 『내가 아니야』가 보여주는 부정의 방식이 어떻게 종교, 법, 도덕이 전달하는 ‘윤리’적 명령들을 중지시키고, 욕망을 넘어 향유로 나아가는 예술적 ‘승고’에 도달하고 있는가에 보다 더 주목하고자 한다.

라캉의 정신분석이 문학연구에 제공하는 것은 법과 도덕의 본질을 상징계와 실재계 사이의 거대한 지형학적 구조에 비추어 조망하고 이해하는 정신분석의 고유한 이론적 ‘체계’ 일 것이다. 본 연구는 라캉의 정신분석에서 제공하는 이와 같

은 이해를 빌려 와 『내가 아니야』를 정신분석의 윤리적 수행으로 논증하고 법과 도덕의 한계를 넘는 예술의 숭고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라캉은 그의 『세미나 7권』(*The Seminar of Jacques Lacan Book VII*)에서 예술의 기능은 주체의 욕망과 대타자의 ‘금지’ 사이에서 주체에게 행사된 상징계의 폭력을 상회하는 폭력을 ‘창조’해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예술의 창조가 ‘무로부터의 창조’(Creation ex nihilo)를 위한 가장 심오한 파괴에 도달할 때, 주체는 상징적 ‘금지’의 억압을 넘어서는 ‘숭고’(sublimation)의 지점으로 인도되며 동시에 가장 윤리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법과 도덕적 명령에 대한 라캉의 통찰을 적용하여 『내가 아니야』의 ‘부정’은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욕망’의 욕망하기를 정지시키는 예술적 ‘향유’ 즉 정신분석의 윤리로 귀착되고 있음을 규명해 볼 것이다.

『내가 아니야』에서 상징계적 모든 주체의 흔적을 지워버린 청자와 상징적 주체의 기호인 ‘나’를 거부하는 입이 보여주는 ‘부정과 일탈’(negation and transgression)의 경로는 정신분석의 윤리를 그 궁극까지 추구하고 있는 예술적 숭고의 예를 제공한다. 입의 광기와 강박은 스스로 자청하여 상징적 질서의 환상을 횡단하고 있는 ‘내가 아닌 그녀’의 고통의 징후들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그녀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파편화된 내러티브의 구조가 반복될수록 입은 상징적 질서를 벗어난 물의 차원(das Ding)으로 고양되고 있음을 밝혀볼 것이다. 그럼으로써 주체의 환상과 욕망을 ‘숭고’로 이끌어가는 예술의 ‘윤리적 해방’이 예술의 구멍(입)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음을 예술의 고유한 기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II. 정신분석의 윤리

라캉의 ‘정신분석의 윤리’는 아버지의 법과 주체의 욕망 사이에 금지와 대립이 아닌 다른 관계가 성립할 수는 없는 것인가 하는 질문과 더불어 시작한다. 상징계란 언제나 주체를 그 자신의 실재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한 표상될 수 없는

기표로 대체하기에 라깁은 “주체란 소멸되지 않고서는 탄생할 수 없다”고 말한다 (Four Concepts 221). 따라서 대타자의 근본적인 억압의 결과로 탄생하는 라깁적 주체에게 상징적 법의 금지는 어쩔 수 없이 복종해야 하지만 동시에 위반하고 싶은 한계이기도 하다. ‘정신분석의 윤리’는 이러한 상징적인 억압과 그로 인한 주체의 욕망을 ‘환상과 부정’이라는 두 항을 통해 해체함으로써 그 스스로를 정신분석의 가장 전복적인 지점으로 이끌어 간다.

라깁은 금지와 욕망의 관계를 사회적 법과 죄의 관계로 병치시키면서 욕망이 금지에 의해 유발되고 또 유지됨과 동시에 법의 금지 역시 주체의 욕망에 기대어 서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고 말한다. 프로이트의 「토텐과 터부」에서 보듯이 최초의 금지로 기능한 ‘아버지’는 아들들에 의해 살해된다. 그 후 아들들은 토텐(상징적 아버지)을 숭배하며 살인의 죄책감을 면하고 동시에 터부를 만들어 그들이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다시 살해당하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 이 때 라깁이 자신의 독특한 시선으로 프로이트로부터 읽어내고 있는 것은 “욕망과 법의 관계”이다. 아버지를 죽인 아들들은 아버지만 없으면 자신들의 욕망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충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막상 아버지 살해는 기묘하게도 주체에게 그 스스로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아들들은 욕망충족을 위해 아버지를 살해했지만 아버지 살해는 아들들에게 무제한적인 개인의 욕망을 단념시키고 허용될 수 있는 욕망만을 추구하라는 ‘상징적 명령’(법)을 초래했을 뿐인 것이다.

정신분석의 윤리는 바로 이런 사실—욕망의 추구가 ‘법’을 낳았다는 점과 그에 앞서 이미 그 욕망이 아버지라는 ‘금지’(법)에 의해 추동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욕망의 무제한적 추구를 위하여 장애물(아버지)을 제거했지만 욕망은 만족대신 법을 통하여 스스로를 지속시켜야 하는 ‘필요’만을 마주했을 뿐인 것이다. 반면 ‘법’ 또한 자신이 금지하는 것을 제대로 금지하기 위해, 즉 법이 법으로서 성립하기 위하여 먼저 개인의 욕망이라는 ‘대상’을 소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하나님.법’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했을 때 그 금지는 위반(죄)에 앞서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신의 내부(금지의 명령)에 선악과에 대한

욕망을 기입하여 소유함으로써만 법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캉은 금지의 체계들과 주체의 욕망 사이에 존재하는 이와 같은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상징계의 경계를 구성하는 모든 법과 도덕, 종교적 계율 등이 실은 ‘환상의 구조물’이라는 것을 밝혀낸다. 다시 말해 법은 금지를 통해 그 금지 너머의 것을 욕망하도록 유도하고 또한 법의 한계는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게 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욕망의 지속을 돕는다. 이때 금지 너머의 것—욕망을 충족시켜서 주이상스(Jouissance)로 이끌어 줄 무언가—에 대한 욕망은 실제로는 확인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과 금지에 의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주체로 하여금 그 너머에 ‘그것’이 존재한다고 믿게 만드는 환상의 효과를 낳는다. 근대적 법과 그 법의 정당성—법을 지키며 선하게 사는 것이 도덕적인 것이다—은 실은 법의 ‘가난’을 숨기기 위한 환상의 배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법의 결핍은 라캉이 정신분석의 윤리에서 말하는 공리주의적인 선의 개념을 통하여 가장 잘 드러난다. 선(Good)이란 재화(Goods)를 나누어 쓰는 것이라는 라캉의 정의(*Seminar VII* 228-29)는 단순하지만 법과 도덕에 대한 그의 깊이 있는 성찰을 담고 있다. 모든 것을 혼자서 독점하면서 스스로가 곧 법이었던 신과 같은 아버지를 죽인 후 아들들이 만들어낸 ‘법’은 곧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욕망을 적당한 크기로 줄일 것을 기표화(성문화)한 것이다. 즉 모든 것을 한 사람이 독점하는 대신 그것을 모두와 공유하도록 요구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선한 것이라는 ‘도덕’적 명령을 ‘법’의 이름으로 치장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선과 행복의 이름으로 강요되는 재화의 공유는 주체의 ‘최대 행복’이 아니라 ‘최소의 행복’일 뿐이며, 법은 이 최소의 행복을 최대의 것이라고 말하는 ‘죽어버린’ 아버지의 목소리에 불과하다. 법과 도덕은 죽어버린 아버지를 아직도 살아 있는 것처럼 취급하면서 발화주체를 상실한 텅 빈 명령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상징계의 ‘환상의 구조물’인 것이다. 주체는 이 사회적 협약에 동의함으로써 모두가 공유하는 천위에 자신의 조그마한 구멍을 뚫고 머리를 내밀 것을 허락받는다.

따라서 법이란 주체가 포기해야만 했던 “주이상스를 전도된 방식으로 추구하는 욕망의 법”인 것이다(*Écrits* 324. 번역수정). 초자아가 우리의 죄책감에서 그

자신의 에너지를 얻듯이 법은 주체의 욕망에 의하여 유지된다. 법이 주이상스를 금지하지 않았다면 욕망이 없었을 것이며 역으로 욕망이 없다면 금지할 것(법)도 없기 때문이다. 모든 근대 계몽주의와 민주국가의 탄생과 관련한 성문법의 근거는 주관을 객관으로, 감정을 이성으로, 미신을 과학으로 대체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이상스에 대한 어느 한 개인의 독점을 금지하고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주이상스로의 접근을 금지함으로써 공동체의 유지에 이바지 한다는 사실에 있다.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법을 공동선에 근거하여 ‘평등주의’로 전환한 이 새로운 법은 주체에게서 주이상스를 제한함으로써 욕망을 유발하고 주체를 그와 같은 결핍의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상징계 내에서 그 자신의 존재이유를 보장받는다.

이런 의미에서 법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욕망의 종결이다. 욕망이란 주체가 법의 금지 아래에 거주한다는 ‘신분증명’이지만 동시에 그 법의 한계 너머에 존재하는 주이상스를 기억(회상)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자신의 존재를 상징적 기표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한 주체는 늘 결핍에 시달리는 욕망의 주체로 드러난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켜줄 것이라고 생각되는 오브제 아(object a)와 상상적으로 결합함으로써 결여의 구멍을 메우려 하지만 실체 없는 기표의 연쇄 속에서 다만 끝없이 욕망할 뿐이다. 이 욕망의 연쇄를 달리 말한다면 그것은 대타자의 근원적 결핍을 내면화하면서 상징계의 회로를 주체의 것으로 받아들인 ‘동일시’의 결과인 것이다(라캉은 상징계의 언어와 개인의 무의식이 동일한 구조로 조직되어 있다는 사실을 “무의식은 언어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통해 압축적으로 표현한 바 있다).

주체는 “욕망의 법” 아래에서, 욕망하되 **단 그 욕망이 절대로 만족되어서는 안된다는 조건 하에서** 욕망하여야 한다(필자 강조). 대타자의 법은 주체에게서 주이상스를 말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적정량 이하로 ‘제한’할 뿐이다. 빈곤한 주체의 ‘욕망’이야말로 그 너머에 진정한 주이상스가 있다는 ‘환상’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상징계는 그 두 대척점 사이의 평야 지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욕망추구의 한계선은 늘 법의 한계와 중첩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곧 상징계 내에서 주체를 구성하는 바로 그 경계들이기도 한 것이다.

정신분석의 윤리는 금지와 결핍에 의하여 형성되고 환상에 의하여 유지되는 상징계의 구조를 또 다른 욕망의 법—“너의 욕망을 포기하지 마라”—으로 대체 하면서 탄생한다(*Seminar VII* 321 참고). 상징계가 욕망의 좌절에 근거하는 것인 반면 정신분석의 윤리는 주체에게 자신의 욕망을 끝까지 철저히 완수하길 요구 한다. 욕망을 법의 금지와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 그 자체가 곧 욕망의 완수에 대한 ‘명령’으로 진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분석의 윤리에서 ‘죄’란 욕망을 끝까지 추구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과 도덕을 어긴다거나 선하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의 의무로서의 욕망의 완수를 포기하는 것이다(지젝, 『향락의 전이』 140-41 참고).

욕망의 절제가 아니라 집요한 욕망의 추구, 혹은 완수가 곧 선이요 법일 수 있는 것은 그것 자체가 상징계의 근거를 부정하는 ‘전복의 방식’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라캉은 “주체와 대타자의 관계는 전적으로 결여의 과정에서 생겨난다”고 말한다(*Four Concepts* 206). 욕망은 주체와 상징계를 연결하는 ‘결여의 과정’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징후(sign)이다. 상징계의 법은 이런 주체의 욕망을 “주이상스 내에서 어떤 한계를 넘는 것에 대비한 방어 즉 금지”로 이용하면서(*Écrits* 322) 욕망에 묶인 주체의 죄책감에 기생하여 복종을 강요하는 억압의 체제인 것이다. “너의 욕망을 포기하지 마라”는 라캉의 선언이 윤리적일 수 있는 것은 상징계의 법이 욕망의 포기를 선한 것(도덕적인 것)으로 제시하면서 주체의 빈곤(거세, 욕망의 포기)에 기대어 자신의 결핍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욕망의 추구’는 욕망의 즉각적 만족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그 자신의 금지 너머로 어떤 진정한 향유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그 자체로 선하다기 보다는 구조적으로 파생된 상징계의 지지물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윤리의 정신분석적 차원에 대한 언급인 것이다.

상징계를 뒤흔드는 과격한 부정의 토대 위에서 이제 주체는 하나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주체에게 욕망의 완전한 성취는 그것의 완전한 포기만큼이나 ‘과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과도함’을 직면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상징계의 법과 도덕에 대한 굴종이 실은 주체의 안락한 피난처로 기능하고 있었음을 더 이

상 숨길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타협될 수 없는 욕망은 지금까지 주체의 욕망이 타협될 수 있었던 이유—“인간의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이다”—를 밝혀준다(Four Concepts 38). 주체는 상징계의 법 아래에서 자신의 욕망을 대타자의 욕망으로 대체함으로써 사실은 자신의 욕망을 죄책감 없이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신분석의 윤리는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포기해야만 했던 욕망을 더 이상 선과 법의 이름으로 위로해 주지 않는다. “너의 욕망을 포기하지 마라”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실은 포기하고 싶었던 주체의 비겁함을 드러내면서 상징계와 맺었던 은밀한 상호협정을 파기하고 대타자로부터 자신을 분리할 것을 요구한다.

‘욕망의 추구’가 무제한적인 쾌락의 만족이 아니라 가혹한 ‘고통’을 수반하는 것은 그것이 곧 주체의 삭제(죽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주체가 상실한 자신의 부재하는 원인을 환상을 통한 욕망의 구조가 아니라 실체로서 대면하길 원하면서 찾아나서는 순간, 그는 상징계가 줄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위험한 존재’가 된다. 그의 요구는 더 이상 자신을 기표와 맞바꿀 수 없다는 ‘거부’이며, 은유적인 대체의 구조로 이루어진 상징계의 무능을 폭로하는 전복적인 행위인 것이다. 다시 말해 그는 모두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할 때, 공동체의 목계를 깨고 ‘진실’을 말한 소년인 셉이다. 상징계 내에서 이 ‘소년’의 ‘죄목’은 그 스스로가 “환상을 횡단”해 보임으로써 타인의 환상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그는 침묵해야 할 때, 발화하고, 속아주어야 할 때 속지 않으며, 포기해야 할 때 포기하지 않으므로써 상징계 전체를 상대로 싸움을 거는 ‘미친 정신병자’인 것이다.

따라서 이 위반자의 진정한 죄는 그의 발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핍을 구조화하는 상징계의 작동을 정지시키는 그의 ‘존재’ 자체에 있다. 이 싸움에 걸린 것은 위반자의 생명이 아니라 오히려 상징계의 생명이다. 환상이란 실상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취급하는 상징계의 성립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환상을 횡단하려는 주체는 오직 상징계와 불화하는 그의 실패를 통해서만 그 자신의 교환가치 ‘제로’(zero)라는 상징적 한계지점까지 나아간다. 그는 자신을 빈곤하게 만드는 모든 포기의—대타자의 욕망을 욕망하지 않으며, 그의 승인을 원하

지 않으며, 자신을 설명할 그 어떤 표지도 소유하지 않으려는—실천을 통하여 상징계 내에서 아무 것도 그와 동등하게 교환될 것이 없는(즉 기표화 할 수 없기에 재현되지도 않는) ‘대상’의 지위를 획득한다. 주체를 소거한 사물과의 대조가 없다면 상징계로 진입하기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희생시켰는지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그의 ‘포기’는 주체의 혈벳은 이면을 폭로함으로써 우리가 소유한 것(상징계 내에서 주체의 지위)의 본질을 비추어 주는 윤리적 인식의 장소로 기능한다.

상징계의 경계를 넘는 어느 미친 위반자의 ‘자기 추방’은 무력해 보일지라도 상징계 전체를 거는 ‘내가’이다. 그렇기에 그의 행위는 자기 자신 이외에는 아무 것도 변화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윤리적’이다. 왜냐하면 그의 저항은 상징계 내에서 상징계를 뛰어넘는 결과를 산출하는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법과 도덕이 주체의 한계를 규정하는 상징계의 시선이라면, 우리는 상징계의 이면을 바라보는(추월하는) 주체의 인식적 지평에 근거한다. 윤리적 행위는 상징계와 상징계의 한계로서의 실재계를 함께 대면하는 것이며, 자신의 내부로부터 타자성을 조우하는 ‘자기부정’에서 시작된다고 할 것이다. 『내가 아니야』와 정신분석의 윤리를 이어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윤리적 부정이며, 이를 통해 달성되는 것은 궁극적인 자기 ‘변신’에의 욕망인 것이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이 작품을 문학의 형태로 전이된 정신분석의 윤리로 독해하고, 나아가 입의 지위를 윤리적 불가능성 속에서 출현하는 송고의 차원에서 분석할 것이다.

III. 『내가 아니야』: 그녀 혹은 ‘그것’의 향유

『내가 아니야』가 지니고 있는 정신분석적 윤리의 힘은 무엇보다도 그 독특한 언어적 뒤틀림에서 발생한다. 『내가 아니야』는 언어적 기표들의 정상적인 규칙과 형태를 과격하게 위반함으로써 주체를 상징계로 진입시키는 언어적 명명의 문턱을 오히려 탈주체화의 변방으로 황폐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주격 대명사 ‘나’(I)에 대한 입의 끈질긴 거부는 곧 언어적 측면에서 상징계 내에서 ‘주체’로서 재현되기

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 거부는 상징계의 법 아래에서 용인되기 어려운 것이기에 입은 먼저 ‘나’(I)를 ‘그녀’(she)로 대체함으로써 상징계로부터 부여받은 발화주체(speaking subject)의 지위를 억압하고, 점차 ‘발화하는 나’(speaking I)를 ‘기표 나’(I)로부터 분리하려 한다.

이런 입의 전략은 상징계가 주체를 기표화하는 바로 그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주체를 ‘다시’ 그 기표로부터 분리(타자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복적이다. 상징계가 ‘나’라는 기표를 통해 삭제된 주체(\$) 아래로 기표화되기 이전의 주체(S)를 억압한다면, 입은 역으로 주체화의 댓가인 기표 ‘나’(I)를 거부함으로써 표상되기 이전의 ‘나’를 환기시킨다. 입의 ‘나’에 대한 거부가 궁극적으로는 결국 재현되기 이전, 혹은 재현할 수 없는 존재의 실재로 나아가기 위한 시도라는 것은 입의 담론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내가 아니야』에서 입은 자신의 탄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면서 극을 시작한다.

. . . . 나왔어 . . . 이 세상으로 . . . 이 세상 . . . 아주 작은 것이. . . 때
이르게 . . . 이 버림받은— . . . 뭐? . . . 여자아이? . . . 그래 . . . 아주 작
은 여자아이 . . . 이 곳으로 . . . 이리로 던져진 . . . 아직 때가 아닌데도
. . . 그 빌어먹을 구멍 뭐라고 부르더라 . . . 뭐였지 . . . 상관없긴 하지
만 [. . .] 사랑이라곤 못 받고 . . . 겨우 살아남았지 . . . 보통 주어지는
그런 사랑도 없이 . . . 말 못하는 갓난아이에게 . . . 집에서

. . . . out . . . into this world . . . this world . . . tiny little thing . . .
before its time . . . in a godfor— . . . what? . . . girl? . . . yes . . . tiny
litle girl . . . into this . . . out into this . . . before her time . . .
godforsaken hole called . . . called . . . no matter [. . .] so no love . . .
spared that . . . no love such as normally vented on the . . . speechless
infant . . . in the home [. . .]. (376)

입은 자신을 하나의 물건(thing)으로 지칭함으로써 세계 속에서 스스로를 ‘인칭화’하는 대신 ‘대상화’한다. 그러나 이런 입의 시도는 관객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목소리에 의해 즉각적으로 저지되며 그 대상을 ‘소녀’(girl)로 재규정할 것을 요청

받는다. 즉 이 불순한 담론은 ‘다시’ 씌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때 이르게 세상으로 나온 ‘그것’(before its time)은 그녀(before her time)로, ‘아주 작은 물건’(tiny little thing)은 ‘조그마한 소녀’(tiny little girl)로 변형되어 내러티브의 서두는 다시 한번 말해진다. 비록 수정되었을망정 이 담론적 반복은 S/S 의 공식에서 나타나는 존재의 한계로써 ‘주체화의 경계’를 가시화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미심장하다. 왜냐하면 이때의 반복은 상징계의 검열에 대한 타협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금지된 것을 지시하는 하나의 저항의 행위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교한 예술적 반복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입이 주장하는 ‘그녀’라는 타자에의 지향 역시도 내면의 목소리로 상징되는 대타자의 법과 상징계의 질서에 대한 굴복이 아니라 상징계의 이목을 속이는 고도의 미학적 전략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입은 들리지 않는 목소리의 집요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나’ 대신 ‘그녀’라는 3인칭을 고집함으로써 1인칭 ‘나’의 현존성을 부재하는 3인칭으로 대체한다. 이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saying) ‘나’를, 말해지는(said) 대상으로서 재현되는 나의 이면인 ‘그녀’와 병치시킴으로써 주체와 그것의 기표 ‘나’(I) 사이에 존재하는 환상적(상상적) 동일시의 허구를 언술적 구조 속에서 확인하는 전복적 행위이다. 입의 언표적 교환행위—나와 그녀의 교환, 나의 담론과 타자(그녀)의 담론에 대한 교환—속에서 진정으로 발화되고 있는 것은 ‘나’는 곧 ‘그녀’로 대체될 조건 하에서만 기능할 수 있는 순환적 기표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입의 담론은 발화를 통하여 존재를 확인받으려는 ‘나’와 누군가에 의해 발화되어지는 ‘그녀’로서의 ‘나’ 사이에서 그 어느 쪽에도 포함되지 않는 실재적 나의 존재에 대한 교묘한 ‘증언’인 것이다.

이런 입의 부정은 ‘나’라는 주체의 지위는 상징계와 주체 사이에 성립하는 결코 **공정하지 않은** 거래(교환)의 산물일 뿐임을 드러내면서 나아가 주체의 기표화와 관련한 상징적 법의 폭력을 드러내는 담론적 저항의 장소로 발전한다(필자 강조). 나 대신 ‘그녀’를 주장하는 입의 요구는 주체화의 과정을 관장하는 대타자의 독점적 지위를 위태롭게 함과 동시에 상징계의 재현 시스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왜냐하면 입은 주체화와 관련한 대타자의 행위—나의 존재를 나(I)라는

기표로 바꿀 수 있다—를 역으로 한번 더(encore) 반복—그렇다면 반대로 그 기표 ‘나’를 나라는 물(das Ding)적 실재, 즉 ‘그것’으로 다시 교환할 수 있다—하기를 시도함으로써 스스로 대타자와 대등한 권위를 가정(assume)하고 동시에 상징계의 표상을 무효화하려는 내적인 반항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입은 나를 부정함으로써 실은 주체와 상징계 사이에 성립되었던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계약에 ‘저항’하고 있으며 동시에 거세당하고 억압당하는 수동적 주체를 능동적인 행위의 주체로 변환시키는 위협스러운 힘을 내포하고 있다.

대타자의 법은 이와 같은 저항적 행위를 막아내고 상징계의 정당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입의 요구를, 혹은 억압당한 향유(나의 일부이지만 소외당한 그것, 즉 상징질서 내로 편입하지 못하는 나인 그녀)를 되찾기 위한 주체의 욕망을 ‘죄’로 규정한다(필자 강조). 그러나 라캉은 정신분석의 윤리를 통하여 그 죄를 확정하는 법의 본질이 자신의 결핍을 주체의 결핍(욕망과 그에 대한 죄책감)으로 가리려는 상징계의 빈곤에서 유래하고 있다고 말한다. “금지(법)가 ‘죄’를 필요로 한다”는 라캉의 주장은(*Seminar VII* 177) 상징계의 법이 자신이 부정하는 것(주체의 욕망)을 실은 자신의 내부에 깊이 기입함으로써만 기능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상징계의 질서란 언제나 자신의 욕망을 ‘죄’로 인식하며 억압해야 하는 주체의 고통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다. 즉 욕망에 대한 주체의 죄책감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대타자는 거세의 권한을 가질 수 없을 것이며, 상징계의 법은 주체에 대한 그 모든 정당성을 상실할 것이다. 따라서 법(금지)은 주체의 ‘욕망’에 의존적이면서도 그것을 ‘죄’로서 처벌하는 폭력성을 근거로 하는 ‘자기 모순’의 구조 위에 성립한다.

이런 관점에서 정신분석의 윤리는 주체로 하여금 법과 욕망(죄)의 상호적인 작동의 매카니즘, 즉 주체와 대타자 사이에 성립하는 그 계약의 ‘구조’를 다시 기억해 낼 것을 요구한다. 바로 그 잊혀져야 할 것에 대한 기억, 혹은 달리 말하자면 정신분석의 대상이 되는 환자의 신경증은 상징계의 금지와 억압에 대한 무의식의 징후이자, 침묵시키려는 것과 발화하려는 것 사이의 갈등과 충돌의 결과이다. 상징질서 안으로 편입되지 못하는 것, 즉 기호화 될 수 없는 것이 ‘증상’으로 나타날 때, 주체는 동시에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정신분석가 혹은 대타자를 향하여 “당

신은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는가?”(Che vuoi? *Écrits* 312 참고)를 질문한다. 이때 주체의 질문은 종교적 명령(계명), 도덕적 강령, 법, 선의 개념 등을 통해 주체에게 전달되고 내재화된 모든 상징적 ‘금지’의 체계들에 대한 물음인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아니야』에서 주인공 입은 이 금지와 주체의 관계를 전혀 다른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즉 입은 ‘나’를 부정함으로써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는가?’를 물을 언술의 ‘기표’ 그 자체를 부정하는 과감함을 보인다. 의미화의 연쇄 속에서 주체를 표상하는 기표인 나(I)는 “타자의 장에 나타나는 최초의 기표”이며 이것이 “주체를 다른 기표들에게 표상”할 때 주체는 비로소 태어나게 된다(*Four Concepts* 218). 그러나 극 전체를 통해 다섯 번이나 반복되는 입의 부정은 주체를 표상하지만(태어나게 하면서) 동시에 주체를 소외시키는 이 언술의 기표 나(I)를 히스테리적인 외침 속에서 ‘그녀’(no! . . . she!)라는 부재하는 대상(타자)으로 바꾸어 버린다. 입은 모든 금지에 대한 순응의 대가로 주어지는 ‘나’를 원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상징계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우리가 소유한 것)을 거부한다. 입의 부정은 대타자의 욕망을 좌절시키면서 이제 더 이상 상징계의 결핍을 주체의 결핍으로 보충할 수 없게 만드는 주체의 ‘금지’인 것이다.

입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필자 강조).

그때 법정에서 . . . 그녀가 자신을 위해 무슨 말을 해야 했을까 . . . 유죄인지 아니면 무죄인지 . . . 여인은 일어나시오 . . . 말하십시오 여인은 . . . 그냥 멍하니 쳐다보면서 거기 서있었지 . . . 언제나처럼 입을 반쯤 벌리고 . . . 끌려 나가기만 기다리면서 . . . 그녀의 팔을 끌고 가는 그 손이 반가웠지

that time in court . . . what had she to say for herself . . . guilty or not guilty . . . stand up woman . . . speak up woman . . . stood there staring into space . . . mouth half open as usual . . . waiting to be led away . . . glad of the hand on her arm [. . .]. (381)

종교, 법, 도덕은 입과 같이 욕망을 단념하지 못하고 신경증적 징후 속에서

향유(jouissance)를 지향하는 상징적 질서의 위반자를 노려본다. 이 상징계의 체계들은 주체에게 언제나 ‘고백’ 즉 주체로 하여금 너의 고통이 상징계(의 금지)로 인한 것이 아니라 너의 욕망의 결과임을 ‘인정’하라고 종용한다. 그러나 이 법정증인에게 강요되는 맹세—요컨대 오직 진실만을(nothing but the truth) 말할 것을 강요하는—와 ‘유죄인정’(발화)에의 요구야말로 상징계가 어떻게 자신의 결핍을 주체에게 전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라깡이 말하듯이 오직 진실만을 말한다는 것은 상징계의 기표 내에서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Seminar XX 92*) 법은 이를 정의의 이름으로 주체에게 요구하며 그것에 부응하지 못하는 주체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아의 내부에 ‘죄책감’을 싣트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은 ‘나’를 원하는 것은 주체가 아니라 실은 대타자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주체가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있는 한 상징계는 주체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입은 한순간 자신이 겪는 고통의 원인이 자신의 죄 때문에 받는 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she was being punished . . . for her sins . . . 377*).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입은 곧 그 생각을 부인하면서 추론의 과정전체를 어리석고 헛된 것이라고 무효화 시켜버린다(*that notion of punishment . . . which had first occurred to her [. . .] dismissed . . . as foolish [. . .] all that vain reasonings 377*). 입은 내부적 죄책감을 떨쳐버림과 동시에 상징계의 재판장에서 그들의 유죄인정의 발화요구에 대하여 침묵함으로써 상징계와의 타협을 거부한다.

결국 입의 죄는 ‘나’라는 기표에 의해 표시되는 경계 너머의 것을 욕망함으로써 상징계의 한계를 횡단하려했다는 데 있다. 이 욕망이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주체의 결핍에 기인한 욕망, 즉 상징계가 통제할 수 있는 욕망이 아니라 도리어 상징계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욕망, 즉 상징계가 기표화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었던 것 사이의 ‘관계’ 속에서 상징계의 결핍을 드러내는 통제할 수 없는 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볼 때 종교, 법, 도덕, 선 등은 다양한 이름으로 드러나는 한 가지 근원, 즉 향유를 향한 주체의 욕망을 차단하기 위해 생겨난 금지의 경계선이자 장애물로 파악된다. 정신분석의 윤리는 주체로 하여금

이 모든 차단의 한계를 충실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금지가 실은 상징적 아버지인 ‘신’의 죽음을 은폐하기 위해 더 한층 화려하게 지어진 종교적 사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성전의 가장 신성한 장소는 실상 비어있듯이 종교, 법, 도덕 역시도 궁극적으로 환상과 위장의 텅 빈 공허(void)에 불과함을 깨닫게 해주는 것에서 출발한다.

『내가 아니야』에서 때때로 입의 말 속에 끼어드는 들리지 않는 ‘목소리’의 존재는 입의 요구—나(I)의 ‘포기’를 인정할 것. 또 그로 인하여 드러나는 상징계의 무능을 인정할 것—에 저항하는 상징계의 간청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입은 자신을 부정함으로써 상징계적 ‘법’을 부정하고 있으며 그녀 혹은 알 수 없는 ‘물’(tiny little thing)의 목소리로 법의 목소리를 무화시키려 한다. 라깡은 상징계의 ‘법’이 주체의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것은 오직 ‘목소리’라는 매체에 기대어서만, 즉 기표에 근거해서만 발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맹정현 182). 그러나 이 목소리가 기표에 근거한다는 것은 주체에게 기표를 강요함으로써 기능한다는 것이지 목소리 자체가 물리적으로 현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이 목소리는 들려오는 순간 환각처럼 사라져버리고 오직 명령의 확실성만을 남길 뿐이다. 『내가 아니야』에서 입이 내러티브를 중단하고 “뭐라고? .. 누구? .. 아니! .. (내가 아니라)그녀야!”(what? .. who? .. no! .. she!)라고 대답할 때마다 암시되고 있는 들리지 않는 ‘목소리’야말로 라깡이 규정한 바로 그 법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입’의 내러티브를 가로막으면서 지금이라도 그들의 ‘나’를 받아들일 것을 거듭 명령하는 목소리는 상징계의 법을 대변하는 대타자의 목소리인 것이다. 그러나 입은 ‘나’ 대신 ‘그녀’를 주장함으로써 상징계의 질서를 규정짓는 법의 ‘금지’(‘나’의 기표 안에 고정되어 존재하라!)를 뛰어넘는 일탈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내가 아니야』의 입처럼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을 때, 혹은 자신의 죄를 끝까지 부정할 때, 상징계의 법과 도덕은 너무도 위험한 실재계의 향유가 너를 삼킬 것이라고 협박한다. 상징계의 ‘목소리’들은 이 선을 넘는 순간부터 모든 고통은 오직 너의 것이자 동시에 너의 책임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상징계와 실

재계의 ‘경계’를 향한 문을 열어준다. 속히 이 위험한 것을 자신의 내부로부터 추방하고 다른 이들이 그를 본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물론 이 추방의 방식 역시도 오랜 세월에 걸쳐 상징화 되어 왔으며 우리는 이를 푸코적인 ‘광인’의 개념에 의거하여 라캉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정상과 비정상, 병리적인 것과 건전한 것, 즉 상징계가 수용하는 것과 소외시키는 것들 사이에 작용하는 그 공식적인 상징계의 ‘거세’구조들 말이다.

이 모든 경계 지점에서 포기할 줄 모르는 입의 욕망은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환원 불가능한 유령 같은 대타자의 목소리에 대항하여 자신이 스스로의 타자가 되고, 바로 자신이자 타자인 그녀의 목소리로 상징계의 타자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라캉의 여성주체의 공식과 일치될 수 있다. 입이 ‘나’(I) 대신 선택하는 ‘그녀’라는 여성적 위치는 발화 주체의 부정과 등가를 이루면서 내가 아닌 것(Not I), 즉 온전히 기표 내에서 정의될 수 없는 것으로서 ‘부전’(not whole)이라는 여성적 영역으로 들어선다. 익히 알려진 대로 라캉의 성화공식(The Formulas of Sexuation)에서 여성의 위치는 ‘부정’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있다. 남성은 펠러스 기능(phallic function)에 전적으로 포함되며($\forall x\Phi x$) 이 전적인 포함은 아버지 기능을 수행하는 어떤 예외적인 존재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as whole)라고 말해지는 반면, 여성은 그녀의 어떤 부분이 펠러스 기능에서 예외적으로 부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펠러스에 종속되지 ‘않는’ 어떤 여성도 ‘없다’. 결국 여성은 펠러스와 관련되어있지만 그것에 의해 전적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부전(not all or not whole)이다.

이런 관점에서 입이 주체로부터의 도피를 ‘그녀’라는 여성적 위치와 함께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내가 아니야』에서 입이 보여주는 ‘나’에 대한 부정은 주체를 실존적 존재로부터 분리하고(거세하고) 기표의 연쇄 속에 위치시키는 상징적 아버지의 기능에 대한 거부라는 점에서 분명히 라캉이 말하는 부전의 여성, 즉 펠러스 기능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여성, 따라서 기표로 쓰여질 수 없으며 금 그어진 채로 나타나는 ‘그녀’와 일치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as soon as Woman is enunciated by way of a not-whole, the W can not be

written. There is only barred Woman here. *Seminar XX 80*).

문제는 나의 거부가 환기하는 ‘그녀’가 기표로 쓰여질 수 없는 것이라면, 혹은 오직 부정의 방식으로 지시될 뿐이라면 그녀는 어떻게 존재하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지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핑크(Bruce Fink)는 라캉이 여성을 규정하는 방식이 긍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정어법을 쓰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Lacanian Subject 112*). 그는 그 이유가 여성적 구조에서 언급되는 상징계의 기표화 작용에 대한 ‘예외’는 단지 하나의 가능성으로 논의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신분석학에서 의식에 대하여 무의식의 확인 불가능성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핑크의 단순한 이해는 라캉의 이론적 기획을 오해하는 점이 있는 듯 보인다. 핑크의 말대로 정신분석의 이론적 토대를 위해 마련된 이 성차이론은 생물학적인 성에 주목하기보다는 주체화의 과정에서 성립하는 상징계와 주체의 관계설정 혹은 기표들의 연쇄 속에서 주체의 장소할당과 관련한 ‘차이’의 위상학을 전개한다. 이때 부전으로서의 여성, 즉 상징계 안에 있지만 동시에 그 너머의 것과 관련되어 있는 주체의 이중적 층위가 설정되지 않는다면 정신분석의 지도는 상상계와 상징계라는 두 영역을 표시하는 데에 그칠 것이며 상상계적 환상과 그로부터 우리를 분리해내는 기표 외에는 가진 것이 없는 빈곤에 시달릴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부전으로서의 여성이야말로 정신분석의 패쇄적 이자 관계를 개방하는 정신분석의 분석이 이루어지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펠러스(Φ)와 관련되어 있지만 또 한편으로 기표 너머의 절대적 타자 S(A)와 관련되는 이중적 여성의 위치는 결핍(욕망)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상징계와, 결핍이 결핍되어(그리하여 결국 ‘모든 것’—All—으로 말해질 수) 있는 실재계 사이의 바로 그 관계를 주체의 층위에서 동일하게 반영하고 있다.

『내가 아니야』에서 입 역시도 이 말해질 수 없는 여성(Woman can not be said. Nothing can be said of woman)을 부재하는 3인칭의 그녀로 바꾸어 말함으로써 라캉과는 또 다른 부정의 방식으로 상징계의 기표-지금 여기 있는 ‘나’(I)-너머의 것을 지시하고자 한다. 이때 입의 (나에 대한) 부정과 (그녀에 대한) 선택에 대하여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입은 나 대신 그녀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

라는 사실이다. 입은 나를 부정하고 그녀를 주장하지만 그녀는 사실 어디에도 없다. 입은 그녀라는 부재하는 기표를 나라는 지금 여기의 주체로 확정하기를 끝까지 거부할 것이고, 입이 말하는 그녀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이지만 그 나의 이야기는 끝까지 그녀의 이야기로 대체될 것이다. 결국 ‘펠러스 기능에 전적으로 종속되지 않는 여성’과 ‘그것에 종속되지 않는 어떤 여성도 없다’라는 라캉의 이중적 부정이 확정될 수 없는 것을 말하기 위한 정교한 어법인 것처럼, 『내가 아니야』에서 입이 주장하는 그녀 역시 나도 아니지만 동시에 그녀도 아닌 것에 대한 부정어법, 혹은 말하면서 지우고 동시에 이미 지워진 것을 가지고 말하는 기표적 발화의 한계지점인 것이다.

이 상징적 기표의 경계지점에서 입은 언어를 발화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조각내고 부수면서 토해낸다.

말없이 보낸 오랜 나날들 . . . 정말 한 마디도 하지 않고 . . . 심지어 혼자말도 없이 . . . 입 밖으로 나온 것이 없는 . . . 하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야 . . . 때로 갑작스런 충동이 . . . 일년에 한 두 번쯤 . . . 이상하게 언제나 겨울이면 . . . 그 긴 저녁 . . . 어두운 시간에 . . . 갑자기 말하고 싶은 . . . 충동 . . . 그러면 눈에 띄는 첫 번째 정류소에서 급히 내려 . . . 가장 가까운 화장실로 달려가지 . . . 그걸 토해내기 시작해 . . . 꾸준히 쏟아지는 . . . 말도 안되는 것들 . . . 모임의 절반은 틀리고 . . . 아무도 못 알아듣지 . . .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을 보면서 . . . 부끄러워 죽을 것 같아 . . . 그곳을 나오지 . . . 일년에 한두 번

speechless all her days . . . practically speechless . . . even to herself . . . never out loud . . . but not completely . . . sometimes sudden urge to . . . once or twice a year . . . always winter some strange reason . . . the long evenings . . . hours of darkness . . . sudden urge to . . . tell . . . then rush out stop the first she saw . . . nearest lavatory . . . start pouring it out . . . steady stream . . . mad stuff . . . half the vowels wrong . . . no one could follow . . . till she saw the stare she was getting . . . then die of shame . . . crawl back in . . . once or twice a year [. . .]. (382)

입의 이야기 속에서 상징계의 기표들은 오랜 세월의 말없음과 어느 날 억제 할 수 없도록 쏟아져 나오는 언어적 구도 사이에서 포위된다. 실재계가 상징계의 이면이 아니라 바로 상징계의 한 가운데서 늘 그것과 함께 존재하는 것이듯이 이 기표들의 혼란 역시도 기표들의 한 가운데서 일어나는 실재계적 재난에 비유될 수 있다. 이 질적으로 다른 힘 속에서 기표들은 그들 간에 확보되어야 할 적당한 거리를 폭력적으로 무시하는 입에 의해 서로의 응집력을 상실하면서 부유하는 기표들로 바뀌거나, 혹은 의미의 누빔점으로부터 떼어내어지면서 단지 손상된 기표들의 더미로 무대 위에 쏟아내어진다. 입은 ‘정상적인’(상징적인) 언어(기표)의 구조를 부수고 조각냄으로써 그것들이 상징계의 양 끝을 마무리하는 경계로 기능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베케트는 『내가 아니야』의 런던 공연에서 입의 역할을 맡았던 제시카 탠디(Jessica Tandy)에게 “나는 관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나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나는 이 작품이 관객들의 지성이 아니라 신경에 작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Brater 200). 베케트의 말처럼 입은 기표가 의미를 전달하는 매개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그것에 비정상적인 빠른 속도를 부여하면서 기표들의 연결(통사적 형태)을 자르고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면서 기표들을 토해내는 실재계의 구멍이 되는 것이다.

이 과도한 힘, 상징계를 찌그러트리고 입을 통해 나오지만 결코 통제할 수는 없는 이것의 부정기적인 방문이야 말로 바로 라캉이 여성의 것으로 언급하는 ‘타자의 쥬이상스’ 혹은 ‘타자로서의 쥬이상스’로 이해할 수 있다. 핑크는 라캉이 왜 펠릭 쥬이상스와 무관한 타자의 쥬이상스 혹은 타자로서의 쥬이상스를 ‘여성’과 관련짓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한다(Fink, "Knowledge" 40). 아마도 이 둘—여성과 타자의 쥬이상스—사이의 연관성은 이 양자가 공히 지식(knowledge)을 뛰어넘어서 존재하는 ‘다 알 수 없는 것’에 속한다는 사실에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남성적 이성의 영역에서 추구되는 지식이 ‘진리’(the truth)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에 반해 라캉이 말하는 여성적 위치와 그에 연관된 쥬이상스란 “그녀조차도 알지 못하지만” 분명 “그녀의 것”이라고 말해지는 “쥬이상스”(There is a jouissance that is hers, that belongs to that "she.")라는 점에서 실재(the real)와

연관된다(*Seminar XX* 74). 예술은 바로 그 ‘말해질 수 없는 실재’—상징계가 그것에 대하여 다 알 수 없기에 언제나 부분적으로 밖에는 말 할 수 없는 것—를 드러내고 또 실재계의 힘을 상징계의 그것과 대립시키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목적도 가지고 있지 않기에 라캉은 이 여성적인 주이상스에는 “문학적인 주제”가 있다고 말한다(75).

이런 의미에서 베케트가 『내가 아니야』에서 ‘나’를 혹은 ‘언어’(상징계의 언어)를 거부하고 어떻게 그녀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를 묻듯이(no love . . . spared that . . . speechless all her day . . . practically speechless . . . how she survived! . . . 381) 라캉이 부전의 여성에 대한 정교한 이론화를 시도하면서 동시에 그런 ‘그녀’의 가장 중요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she” that doesn't exist and doesn't signify anything. 74)고 말하고 있는 것 사이에는 분명 어떤 인식의 공통점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여성적 향유와 관련한 실재계의 힘이란 곧 상징적 주체에 반하는 철저한 ‘타자’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상징적 주체를 죽이지 않고 어떻게 존재하지 않는 그녀를 기표들의 구멍 속에 포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입이 글자 그대로 기표들을 조각내면서 언어들의 연쇄에 가하는 폭력은 단순한 저항, 즉 주체의 소거 혹은 자신의 ‘상징적’ 죽음을 향한 욕망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기표화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자신의 존재를 주장하는 그 어떤 것(유령 같은 텅 빈 기표), 타자의 타자는 없다는 라캉의 언급 속에 기입되어 있는 그 철저한 ‘타자’를 무대 위로 소환하는 예술의 욕망에서 기인한다. 존재하지만 느껴지지 않는 것, 살아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즉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하는—그녀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아니야』의 정신분석학이며 정신분석의 문학적 주제일 것이다.

입은 주체화를 거부함으로써 ‘지금-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그녀와 겹쳐지며, 욕망하지 않음으로써 그녀의 희열을 향유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점차 기표들의 실재(기표이전과 이후)를 드러내는 ‘물’(das Ding, 예술의 object a) 그 자체로

보이기 시작한다. 입은 나의 기표화를 무효화하고 동시에 추적해오는 상징계의 언어적 고착화의 힘을 피해 여성적 위치로 도피하면서 궁극적으로 말할 것도, 생각할 것도, 그를 수행할 ‘나’도 없는(nothing she could tell . . . nothing she could think . . . nothing she— . . . what? . . . who? . . . no! . . . she! 382) 하나의 공백으로 변환된다. 남성의 성화공식에서 어떤 예외적인 존재(예를 들면 원시적 초자아로서의 아버지)는 전체(all)와 함께 기능한다는 점에서 전체를 초월하기보다는 오히려 부가적인 것으로 전체의 일부를 이룬다면(남성 성화공식에서 전체와 예외에 대한 논의는 Zupančič “Perforated Sheet” 참고) 입은 나와 그녀라는 기표 ‘사이’에 자리 잡음으로써 상징계의 기표적 연쇄를 방해할 뿐 아니라 그것에 편입되지 않음으로써(S(A) 상징적 기표 전체로부터 이미 사전에 제거되어진 예외적 부분이라는 차이를 드러낸다.

그것(tiny little thing)은 이제 의미(상징계)와 무의미(실재계) 사이에서 더 이상 “기의를 초래하고, 그것을 지배하지”(Fink, “Knowledge” 31) 않는 중립적인 기표들을 토해내는 어떤 조그마한 ‘구멍’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입이 발화주체를 상실한 언어를 음향적 소음으로, 발화를 비명에 가까운 외침으로 바꾸어버릴 때, 기표들은 기의로부터 분리되고 상징계의 기표적 연쇄로부터 유리된 순수한 기표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입은 그 모든 분석적 진단을 알 수 없는 징후로 나타내면서 상징계의 의미들(법, 도덕, 종교적 계명)과 결합되기 이전의 순수한 기표들, 즉 상징계의 기표적 연쇄 속에서 의미의 저항선 아래로 보내진 그 모든 것들이 되돌아오는 작은 구멍(hole-mouth)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입의 담론적 반복은 언어의 상징적 진술의 측면에서 말해야 할 것에 대하여 다 말하지 못하기에 다시 수행해야 하는 ‘불완전한’ 담론의 증거이지만, 순수한 기표의 차원에서 보자면 라깡이 접근불가능한 것으로 언급했던 그 불가능한 실재계의 차원, 즉 상징계적 주체를 표시하는 기표들의 ‘분배’ 그 자체를 보여주는 텅 빈 ‘지점’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진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IV. 예술의 숭고한 윤리

『내가 아니야』에서 입은 재현의 장 속에서 주체를 탄생시키지만 동시에 모든 억압을 주체에게로 흡인하는 열린 구멍—나라는 기표—에 대하여 단지 텅 빈 구멍—입—을 대조시키면서 나의 존재를 ‘있다’고 믿게 만드는 상징계의 사인(sign)이 단지 실체 없는 기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입이 ‘물’의 차원으로 고양될 수 있는 것은 기표의 연쇄고리 속에서 스스로 자신(I)을 제거했을 뿐 아니라 형태적으로도 상징계의 유기체적 구조로서의 ‘신체’의 경계를 이탈하여 자율성을 획득한, 표시할 수 없는 부분(기표)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한계로서의 신체를 빠져나와버린 이 입이야말로 주체의 내밀한 부분이자 존재적 핵심인 아갈마(algalma) 즉 ‘내 안에 있는 나 이상의 것’, 물(das Ding) 자체인 것이다. 입은 신체와 단절되어 텅 빈 공간에서 생겨나는 또 하나의 공허를 가두고 여는 구멍이다. 이 구멍을 통하여 상징계의 언어구조를 파편화시킴으로써 언술은 단지 강박적 ‘충동’으로 바뀌고, 조각난 단어들의 세찬 흐름은 ‘의미’를 알아들을 수 없는 응얼 거림과 ‘소음’ 속으로 침몰시킨다. 입은 상징계와 실재계 사이의 이음새를 터뜨리고 상징계를 괴롭히는 실재적 외상, 즉 “기표화를 넘어서,” 정신분석의 윤리적 실천에 도달하는 예술의 물적 육체인 것이다(*Seminar VII* 54).

그러나 단순히 기표를 혼란에 빠트리고 상징계의 구멍을 드러냄으로써 대타자의 욕망의 대상이 되기를 욕망하는 것이 헛된 일이라는 것을 직시하도록 해주는 것만이 정신분석의 윤리가 지향하는 전부는 아니다. 분석 주체가 대타자와 자신의 욕망의 순환관계를 이해하고 대타자의 무능(lack)을 직면했을 때, 이와 같은 ‘환상의 횡단’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전이 아니라 오히려 ‘그 후’이기 때문이다. 이제 주체는 대타자, 혹은 자신의 욕망의 원인(object a)과 그전의 관계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안다. 그렇다면 어떤 새로운 관계가 가능할 것인가? 실천적 정신분석의 임상적 관점에서 볼 때 ‘환상의 횡단’은 일종의 ‘거리두기’라고 말한다. 분석주체는 이제 욕망을 유발했던 대타자와 자신 사이의 소외를 더욱 밀고나가서 대타자의 욕망으로부터 자신의 욕망을 분리한다. 그 결과 주체는 그 스스로

가 자신의 욕망의 원인이 됨으로써(subjectifying the cause of desire) 타자의 욕망을 주체의 욕망으로 바꾸게 된다는 것이다(Fink, *Subject* 62-3).

결국 정신분석의 윤리는 대타자와의 관계를 환상, 금지, 억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환상을 횡단함으로써 대타자와 나와의 관계를 다시 구성하는 것이다. 주체는 스스로가 욕망의 원인이 됨으로써 대타자의 억압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으며 상징계에 근거를 두지 않는 자신의 ‘충동’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주체는 상징계와 실재계의 지형학을 통해 구조적으로 생산된 욕망이 아니라 자신의 ‘충동’에 의 만족, 즉 “불안정하고 외상적이며 초과적인 향락”을 고통과 쾌락 속에서 추구함으로써 어떤 의미에서 더 이상 ‘욕망하지 않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Zizek & Daly 113). 정신분석의 윤리는 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너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무조건적으로 명령하는 대타자의 법과 도덕의 요구에 맞서서 자신의 ‘충동’을 향유하려는 행위 속에서 ‘주체의 자율성’을 발견한다.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대타자에 대하여 그의 법을 위반하고 자청하여 “범죄자가 됨으로써 선해지는 것”(criminal good)이 바로 정신분석의 윤리인 것이다(*Seminar VII* 240).

문제는 이 새로운 관계가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실제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주체란 언제나 상징계의 주체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환상을 횡단하는 것은 주체의 해방이 아니라 실제로는 주체의 폐기(subjective destitution)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지젝은 이때 “폐기 속에서 위태로워지는 것은 정확히 주체는 더 이상 자신을 주체로 전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말한다(*Sublime Object* 230). 주체의 폐기는 라캉이 사드적인 완벽한 ‘파괴’를 ‘죽음 본능’에 대한 새로운 자신의 해석으로 도입하면서 “무로부터의 창조”를 정신분석의 윤리에 포함시킨 것과 유사한 이론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젝은 이 후 『불완전한 주체』(*Ticklish Subject*)에서 이 문제를 ‘행위’라는 측면에서 전개한다. 즉 주체는 상징계의 모든 환상의 경계를 넘고, 자신의 아갈마를 포기하는 ‘행위’를 수행하지만 이런 행위가 일어나는 순간을 통제하거나 결정할 수는 없으며 그 모든 것은 가장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의식의 개입이 가장 최소화된 상태(대타자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상

태)에서 일어날 때 진정한 행위가 되며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369-92 참고). 지젝의 이런 사건과 행위개념은 가장 순도 높은 정신분석의 윤리적 주체란 궁극적으로는 ‘환상을 횡단하는’ 주체의 능동성이 아니라 가장 수동적인 순간에 존재한다는 역설을 담고 있다. 정신분석이 종결되는 지점으로서 더 이상 욕망하지 않는 주체는 대타자의 주체를 거부하기까지는 주체적 ‘능동성’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그 후’에는 안티고네에 대하여 라캉이 사용한 표현 그대로 “스스로 자칭하는 희생자”(self-willed victim)가 되는 것이다(*Seminar VII* 247).

라캉이 실재와 상징화 사이의 간극 속에서 발견되는 윤리적 주체에 대한 예를 주로 문학 작품들(『안티고네』, 『오이디푸스』, 『포로』, 『리어왕』)에서 발견하는 것은 정신분석의 윤리적 주체가 현실에서 실현되기는 어려운 것이라는 점을 의식한 결과일 것이다. 라캉은 안티고네, 오이디푸스, 시뉴(폴 클로델의 『포로』의 여주인공), 리어왕 등의 공통적인 특성을 모두 ‘비인간적’(inhuman), ‘완고한’(inflexible)이라는 말로 규정한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두개의 죽음’ 즉 상징질서의 안도, 바깥도 아닌 장소에서 살아있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상태(undead)에 처해있는 비인간적인 인물들이며 또한 상징계의 법과 타협하지 않는 굽히지 않는 완고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내가 아니야』에서 입 역시 상징계의 법을 부정하는 완고함과 물과 주체(나) 사이에서 이를 할 수 없는 ‘잉여’로서 자신을 위치지운다는 점에서 위의 인물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입은 상징구조 너머의 ‘무’를 드러낼 뿐 아니라 그 스스로가 실재계의 두려운 ‘무’(nothing)의 가시화된 모습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예술의 ‘숭고’를 구현하는 놀라운 이미지라는 차이를 가진다. 입은 상징계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무로부터 생겨난 경계이며 상징계처럼 그 속은 텅 비어 있다. 입은 상징질서 속에서 기표화되기를 거부하고 실재계의 무를 ‘공연’함으로써 또 다른 의미에서의 ‘무로부터의 창조’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 두 죽음 사이에 위치한 예술의 실체적 주체에 해당할 것이다.

지젝은 숭고한 대상은 라캉이 물(*das Ding*)이라고 부른 욕망의 불가능한-실체적인 대상의 자리를 우연히 떠맡게 된 평범하고 일상적인 대상일 뿐이라고 말한

다. 따라서 “숭고한 대상은 물의 차원까지 **고양된 대상**인 것이다”(Sublime Object 194 필자강조). 『내가 아니야』에서 입은 기표들을 발화하는 것이 아니라 ‘배설’하면서, 상징계의 변방에서 가장 비천해짐으로써 가장 숭고해지는 예술의 ‘대상 a’ 즉 물의 차원으로 고양된다. 칸트가 ‘숭고’의 특징으로 지적하는 이성적 판단력에 대한 ‘폭력’, ‘혼돈’, ‘무형식’의 무한계성은 정신분석의 견지에서 상징계의 제방을 넘는 실재계의 범람, 즉 정신분석의 윤리적 ‘행위’ 속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될 수 있다. 라캉이 오직 “미(美)만이 욕망의 출현을 정지시킨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예술 속에서만 발견되고 또한 실현될 수 있는 예술의 대상 a의 ‘숭고’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입은 부분화된 자신의 모습을 통해 형식의 실패를, 그리고 조각난 기표들을 통해 (기표가 결코 현전을 재현하지 못한다는) 기표의 실패를 보여주면서 이런 이중의 실패 속에서 숭고한 대상이 된다. 이 대상[입]은 그것의 “표상을 통해서 자연이 관념들(ideas)의 현전과 등가적인 것[물 자체]으로서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영역으로 고양됨을 정신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202).

주제어 사무엘 베케트, 라캉, 『내가 아니야』, 정신분석의 윤리, 숭고, 물 자체, 향유

인용 문헌

- 맹정현. “라캉과 사드: 전복을 위한 몇가지 연산.” 『라캉의 재탄생』.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2.
- 프로이트, 지그문트 김석희 역. 『문명 속의 불만』(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s). 서울: 열린책들, 2003.
- 지젝, 슬라보예. 이만우 역. 『향락의 전이』(The Metastases of Enjoyment). 서울: 인간사랑, 2002.

- Beckett, Samuel. *Samuel Beckett: The Complete Dramatic Works*. London: Faber and Faber, 1986.
- Brater, Enoch. "The I in Beckett's *Not I*."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20. July (1974): 200.
- Fink, Bruce. *The Lacanian Subject: Between Language and Jouissance*. Princeton: Princeton UP, 1995.
- _____. "Knowledge and Jouissance" *Reading Seminar XX*. Eds. Suzanne Barnard and Bruce Fink. Albany: State U of New York P, 2002. 21-45.
- Lacan, Jacque. *The Seminar of Jacque Lacan Book VII*. Trans. Dennis Porter. New York: Norton, 1997.
- _____. *The Seminar of Jacque Lacan Book XX: Encore 1972-1973*. Trans. Bruce Fink. New York: Norton, 1998.
- _____. *The Four Fundamental Concepts of Psychoanalysis*. Trans. Alan Sheridan. New York: Norton, 1981.
- _____. *Écrits: A Selection*. Trans. Alan Sheridan. New York: Norton, 1982.
- Žižek, Slavoj. *The Sublime Object of Ideology*. London: Verso, 1989.
- _____. *The Ticklish Subject: A Treatise in Political Ontology*. London: Verso, 1998.
- Žižek, Slavoj & Glyn Daly. *Conversation with Žižek*. Cambridge: Polity, 2004.
- Zupančič, Alenka. "The Case of the Perforated Sheet." *Jacques Lacan: Critical Evaluations in Cultural Theory Vol. IV*. Ed. Slavoj Žižek. London: Routledge, 2003. 68-80.

Between Desire and *Jouissance*: The Ethics of Psychoanalysis in *Not I*

Abstract

Park, Jisuk

In this article, I discuss *Not I* as a play that dramatizes the resistance to the order of symbolic which engenders all subjects, who are ones of desire. Taking into account the Lacanian ethics of psychoanalysis, I stress mouth's refusal to say the first person pronoun 'I' as a denial of the place of subject which is assigned at the expense of *jouissance*. With the rejection of the symbolic subject, mouth tries to escape from all the regulations of the symbolic law which is established depending on the subjugation of the subject who unwittingly surrenders his or her desire in exchange for the place of 'subject.' Through the renouncement, however, mouth reveals the fact that the symbolic can be sustained only by means of the very desire of subject. On the one hand, setting limit to the freedom of subject in the name of law, moral, and commandments of religion, the symbolic induces a subject to desire something beyond the limit that is believed to satisfy the lack. On the other hand, the symbolic causes a sense of guilt from the subject who desires the forbidden by law, (ab)using the authority and justice of the laws which prohibits the subject from access to the beyond. In this way, the symbolic tries to keep the desire as a lack in subject and simultaneously undertakes a dominant position over the subject.

In *Not I*, mouth never 'gives ground relative to its desire', nor accept the ruling of the symbolic law. Rather, mouth transgresses the realm of the symbolic throwing away every signs to represent herself or itself, also breaking

down the chain of signification into the debris of fragmented signifier. All these acts bring mouth or her to the place of thing or hole of the real which can not be signified nor signifies anything. The ethical value in the transgression of mouth emerges at the border of the symbolic and the real where the complete realization of desire which paradoxically refers to disillusionment with the essence of desire can be possible. The painful traverse of fantasy liberates a subject from both the internal and external censorship. That freedom of subject obtained through the recognition provides a subject with ethical dimension having nothing to do with oppression, sense of guilt and obligation.

Key Words Samuel Beckett, Lacan, *Not I*, The Ethics of Psychoanalysis, the sublime, das Ding, Jouissance

박지숙 (단독연구)

부산대학교

논문투고일: 2007년 2월 28일

논문 심사일: 2007년 3월 5일 ~ 2007년 4월 5일

게재확정일: 2007년 4월 9일